

“他카스트 불자끼리 결혼 추진”

인 대규모 개종식 준비 수레스 보드 YBS회장

지난 5월과 6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비하르, 자르칸드 3개주(州)의 여러 마을에서는 조용한 개종의 물결이 일었다. 9개 군(郡)에서 12차례에 걸쳐 열린 개종식 행사에서 모두 12000여명이 불자로 거듭났으며, 요즈음도 포교활동과 개종식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개종식을 주관한 단체는 인도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of India: YBS). 석가족을 중심으로 뜻있는 불자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포교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다음 개종식을 준비중인 YBS 지도자가 브라만들의 총격으로 희생당함으로써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도 델리에 지부 설립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과 천인들에게 법문을 하고 하강하셨다는 상가시아에서 대규모 개종식(10만여명 참석 예정)과 불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델리지부 설립 관계로 델리를 방문한 YBS 회장 수레스 보드(Suresh Boudh)씨를 만나 YBS의 활동 및 석가족 개종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YBS의 활동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올해 내가 한국에서 귀국한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조직을 만들고, 개종식을 준비했다. 5개 주계를 계기로 힌두교도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 기쁘다. 기존의 이름뿐

인 불자들도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YBS는 대다수가 석가족 출신들로 이루어졌다. 타 카스트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
“우리는 다른 카스트 출신들을 환영한다.

이번 개종식에서도 개종자들 중 약 20%는 타 카스트 출신이었다. 그 중에는 브라만도 있고, 이슬람교도였던 사람들도 있다. 카스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른 카스트 출신 불자들끼리의 결혼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4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총격사건으로 포교활동과 개종식에 나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카스트 출신들을 환영한다.”

◆앞으로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사실 속수무책이다. 마을마다 불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한 공격에 대해 똑같이 총칼로 맞서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인도 불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1956년 인도에 불교를 부흥시켰던 암베

“이름뿐인 신자들 불법공부로 거듭나야 불교가 쏘인도인의 종교로 발전했으면”

“YBS 지도자를 공격함으로써 불교도들과 불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 개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건의 저지른 자들의 의도였다. 사실, 우리 YBS도 그 사건으로 개종 운동이 후퇴할까 봐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사건 직후의 칸노즈 개종식은 대성공이었다. 원래 2000명의 개종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00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일부 힌두교도들은 그런 의류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의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드카르 박사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후계자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뿐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불교를 믿어야 할 때라고 본다. YBS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리고 석가족의 불교 귀의를 계기로 인도의 불교를 달리르민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도인들의 종교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도 델리= 이지은 통신원



△최근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법륜스님(JTS이사장)과 함께 인도 보드기아인근 수지타카카데미에서 학생들과 대화중인 수레스 회장. 그는 수지타카카데미 교장을 역임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5. 계승되고 있는 ‘화엄사기’ 전통

달포전 역경원의 월운스님께서 힘써 그 내용을 연찬하라는 전화말씀과 함께 <삼가본사기(三家本私記) 전2권을 보내주셨다. 모두 <화엄경 청량초심지품>을 주석한 사기(私記)이다. 금년 3월 봉선사 능엄학림의 여러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펴낸 <삼가본사기>는 조선후기불교의 대중사상인 설파(雪坡), 연담(蓮潭), 인악(仁岳) 세 분 스님들이 <화엄경>을 연찬하면서 작성한 연구자료를 현대화시킨 것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엄사상가로서 일생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강의함으로써 화엄사상을 신앙하신 화엄의 종장(宗匠), 연담 유일(1720~1799)에 의해 완성된 <화엄사기>의 전통이 후대에 끼친 보다 광범위한 영향은 조선 후기 이래 화엄교학의 중요교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 하편에서 이렇게 썼다. “호암제정

있다. 연담의 <화엄사기>가 보여주는 특징중의 하나는 <화엄경>을 축자적으로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 전체의 근본대의를 선교(先敎)의 구성과 내용을 교의적면과 본분적면으로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조선 중기이래 우리나라 불교계의 화엄학 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청허후정(1520~1604) 문하의 4대 문파를 확립한 송운유정, 편양언기, 소요태능, 정관일선과 같은 고승들은 모두 화엄의 종장들이었으며 이후 청허후정의 문파에서 계속 배출된 월지도안(1638~1715), 환성지안(1664~1729), 회암정해(1685~1741), 인악의침(1746~1796), 목암최눌(1717~1790), 연담유일 스님 등은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엄의 대중사상가였다. 그들은 <화엄경>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화엄법회

조선시대 대표적 불교사상 역불승유의 고난에도 맥이아 옛 석학 업적 등한시 말아야

虎巖(虎巖)의 고제(高弟), 연담유일과 설파상인의 후학 인악의침은 모두 근고의 대강사이다. 두 스님 모두 교문의 석덕(碩德)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여러 경론의 강설을 전수하였다. 또한 스스로 그 의미를 탐구하여 각자 저술을 이루었으니 이름하여 사기(私記)라고 하고 혹은 사집(私集)이라고하여 흔히 참고가 된다. 경에는 소(小)와 대(大)의 차이가 있으나 사기(私記)는 소초(小初)이며 주석(註釋)의 주석이다. 이능화는 이처럼 사기(私記)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학(經學)에서도 역시 사기(私記) 단숨에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철저한 탐구로 통사(通史) 연구는 문이다. 그러므로 연담유일의 <화엄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기(私記)들은 자신이 수확한 스승들과 동료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각 소초(小初)의 오자(誤字)와 탈자(脫字)를 교정하고 문단의 동이(洞異)는 물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예를들어 연담의 <화엄경> 세주(世注) 업종(業宗)에서만 약 50여 개의 오자(誤字), 연자(衍字), 탈자(脫字)를 교정하고

호남불교의 전통을 이어간 해남 대흥사의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는 모두 화엄경에 정통한 화승들이었다. 연담유일의 화엄사기는 이상과 같은 화엄교학의 전성시대를 집대성한 총괄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화엄경>뿐만 아니라 강원의 여러 사기(私記)들이 조선 후기 이래 제방의 강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본의 불교학계는 조선불교의 사기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 불교의 종학(宗學)에 대한 소홀함을 반영해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화엄학 전공자들이 우리 선학의 업적을 등한시함으로써 잃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선학의 업적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틀린 오자와 탈자가 섞인 텍스트를 읽는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적인 강학의 큰 틀을 몸이 익힐 내용의 기회마저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경학회 회주

초기불교용어 ‘범어’ 사멸위기

인도 10억인구중 자유롭게 구사 2~3천명뿐 옛 왕족끼리 쓰던 언어로 활용분야 극소수

초기불교 용어인 산스크리트(梵語)가 본고장 인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언어중의 하나인 산스크리트는 고대 인도의 엘리트 층에서 사용되던 언어이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고귀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죽은 언어가 돼가고 있는 것. 수많은 인도의 언어중 대부분은 산스크리트의 기본 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10억이 넘는 인구중 산스크리트를 자유롭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천~3천명이 고작이다. 뭄바이에서 가장 오래 된 교육

기관인 ‘바라티야 비드야 바반’에서는 학생들이 산스크리트로 된 문장을 낭송한다. 그러나 학생 수는 단 150명 뿐. 이 도시의 각급 학교에 다니는 수십만명의 학생수에 비하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산스크리트를 배우려는 학생이 거의 없는 데 대해 이 학교의 나렌드라 쿠마르 심 교장은 ‘산스크리트를 배워야 봉급이 적은 교수나 교사 외에는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자들을 위해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가 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산스크리트가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언

어가 일반 대중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고 왕족간에 오가는 편지나 고전적인 산문, 시 등을 짓는데 사용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반면, 3세기부터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남방불교의 팔리삼장을 형성한 팔리어는 서민층에서 쓰는 구어체로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있다. 산스크리트는 BC 5세기~BC 4세기경의 문법학자 파니니(Pani)가 당시 서북인도 지식계급의 언어를 기초로 한 문법서 <아시타다이이: Adhyay>를 써, 체계를 완성했다. 불교경전은 처음 그 경전이 사용된 각 지방의 속어에 의해 전해졌지만, 부파(部派)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設一切有部)에서 경전을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했다.



日 스님들, 인도-파키스탄 평화기원 순례

일본 스님들이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날을 기념해 파키스탄 텍실리에 소재한 다르마라자카 물담을 참배한 후 인도에 이르는 3개월간의 평화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스크리트와 불경

BC5~4세기경 문법원성 부파불교시대부터 사용
또한 인도 전역에 산스크리트가 사용되는 경향에 따라 속어로 쓰여졌던 것도 산스크리트화되었다. 한역(漢譯) 불전의 원본에는 팔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불행은 행복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보왕삼매론 강의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총신국판 / 240쪽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구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궁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삶의 장애 요인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불행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감동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타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장 : 병고(病苦) 약망(弱望)으로 삼아	7 장 : 인간관계 속의 수행
2 장 : 고난(苦難)은 해탈의 원동력	8 장 : 배움의 보람을 바람이 없이
3 장 : 마음공부와 장애	9 장 : 참된 자기 이익의 길
4 장 : 수행인의 서화와 마(魔)	10 장 : 억울함을 향상의 기회로
5 장 : 일은 업(業) 따라 이룬다	11 장 : 막힌 세서 통한다
6 장 : 서로를 살리는 정을 나누며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항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沙物), 석등, 탑 등에 담긴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저음 / 4x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은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좌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요,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필독서입니다.

김현준 저음 / 4x6판 / 값 3,500원

전수경 전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전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전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존재전인, 여러 시대발전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혜국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믿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가는 속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만나는 믿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지기를 돌아보는 믿음

<자경문(自警文)>은 아흔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담긴 자유와 행복이 발원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계엄과 방종을 막는 따분한 말씀으로 빚을 풀어 스스로를 비취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신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믿음기쁨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례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말이론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저음 / 신국판 / 값 5,000원